

연금 시장 리뷰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2012 글로벌 10대 트렌드

퇴직연금

- 동향 : 베이비부머 노후준비 상태 현황
- 이슈 : 실버 취업자의 특징 및 시사점
- 퇴직연금통계 (2011년 11월 현재)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201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4.0% 상승

-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12월 및 연평균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011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0(2010=100)으로 전년대비 4.0% 상승
 - 구성별로는 신선식품지수가 106.3(2010=100)으로 전년대비 6.3%, 생활물가지수도 104.4로 4.4% 상승하며 평균상승률을 상회한 반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3.2%)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2.6%)는 상승폭이 낮았음
 - 한편, 2011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2%, 전월대비 0.4% 높아져 물가 상승폭이 재차 확대됨
- 정부는 2012년 국정목표를 민생안정에 두고 물가상승폭을 3% 초반으로 설정

○ 금융 동향: 미국 경제지표 개선의 호재와 이란 사태 등의 악재로 금융시장은 혼조세

-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지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고용지표도 개선되는 등 선진국경 제회복에 대한 기대에도 유럽 재정위기 재점화, 이란사태 악화로 금융시장은 혼조세를 보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월 평균 3.36%에서 2012년 1월 5일 현재 3.35%로 0.1%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 지속과 이란 사태 악화 등으로 12월 평균 1,148.3원에서 1월 5일 현재 1,154.0원으로 5.7원 상승
 - 코스피 지수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 소식 등으로 2011년 12월말 1,825.7p에서 2012년 1월 5일 현재 1,863.7p로 38p 상승함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1월5일
				1/4	2/4	3/4	11월	12월	
실물 지표	GDP성장률(%)	0.3	6.2	4.2	3.4	3.4	-	-	
	산업생산(%)	-0.1	16.2	10.6	7.2	5.1	3.1	-	
	소비자물가(%)	2.8	2.9	4.5	4.2	4.8	4.2	4.2	
	실업률(%)	3.6	3.7	4.2	3.4	3.1	2.9	-	
	경상수지(억달러)	327.9	282.1	26.1	54.9	71.7	35.0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4.04	3.72	3.80	3.68	3.60	3.39	3.36	3.35
	원/달러(원)	1,276.4	1,156.0	1,119.8	1,083.2	1,085.1	1,134.2	1,148.3	1,154.0
	코스피지수(P)	1,682.8	2,051.0	2,106.7	2,100.7	1,769.6	1,847.5	1,825.7	1,863.7

주: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고,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 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 이슈 : 2012 글로벌 10대 트렌드

■ 올해에 세계적으로 세계경제, 지역경제, 자원환경, 사회문화 분야에서 10 개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경제

① **재스민혁명 제 2 라운드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태동.** 2012 년 주요국의 정권교체와 맞물려 선거라는 제도적인 통로를 통해 '재스민혁명 제 2 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및 기업 위주였던 기존의 거버넌스는 소셜네트워크(SNS)의 발달을 매개로 시민사회와 신세대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로 진화하고 있다. 버텀업(Bottom-up) 방식의 뉴거버넌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이전의 탑다운(Top-down)방식과는 판이한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거나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② **유니폴라(Uni-polar) 시대의 종말.**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국으로서 미국은 세계 중심적 역할과 특권을 누려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 회복 지연, 달러화의 약세 기조 지속, 소버린 리스크의 재부각 가능성 및 중국의 G2 로의 부상 등으로 유니폴라 시대는 막을 내리고 국제통화체제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시장 보호를 위해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글로벌·지역 금융안정망 강화에 적극 참여하고 외환 보유고 다변화, 한-중 FTA 조기 타결 등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

③ **유로제국의 환상.** 유럽연합은 정치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유로존'이라는 통화동맹을 맺었으나,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로존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재정-금융 복합위기 우려가 커지고 경기둔화세가 뚜렷한 가운데, 리더십 부재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향후 유로존은 은행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재정위기국의 국채 매입, 재정규율 강화로 위기 확산 차단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자원조달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 지역경제

④ **팍스차이나(Pax China), 1 막 1 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가 중국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경제, 군사력 증강에 치중한 하드파워를 넘어 소프트 파워로 발전하기 위해 IT 기술과 문화, 예술 분야를 육성하며 진정한 팍스차이나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경제 및 외교 면에서는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권역에서의 패권 강화를 기회로 이용하여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및 문화적 측면에서는 IT 기술과 문화적 콘텐츠의 강점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⑤ **호루므즈 해협의 핵위기.** 2009 년 4 월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을 주창하였다. 특히,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4 년 내 모든 취약 핵물질의 안보 확보(secure)'를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2012 년 3 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이란과 북한 등 핵 확산 위험국에 대한 통제 및 경계 강화가 논의될 전망이다. 본 회의에 북측 책임자를 초청하여 북한이 핵안보 관련 모든 국제 규범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 자원환경

⑥ **클라크 법칙의 역전: 1 차 산업의 부상.** 1 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질 것을 의미하는 클라크 법칙 이 2000 년대 들어 위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원 고갈 우려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자원 개발 확대 때문으로 원자재 생산 산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향후 자원 보유국의 영향력 강화, 자원 전쟁의 격화 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해외 자원 개발 노력 증대, 자원 외교의 강화, 대체 에너지의 발굴과 산업화 추진 등을 통해 미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 자원의 확보가 절실하다.

⑦ **그린(Green)과 그레이(Gray) 전쟁의 격화.** 환경보호(Green)와 경제발전(Gray)을 둘러싼 세계적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012년에는 교토의정서 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적 강제성을 갖는 새 기후협약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개발도상국간 상호 견제와 경쟁이 격화되는 등 국가간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한국도 글로벌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 체제 및 경제 성장 전략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 사회문화

⑧ **소득 양극화와 도전받는 1%.**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이 상위 1%의 금융권의 실수에 있으나, 그 고통은 나머지 99% 국민들에게 돌아와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으로 저소득층은 삶의 고통이 가중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층의 불만 표출이 거세지고, 상위 1%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⑨ **컬처믹스(Culture Mix)의 확대.** 경제의 글로벌화, 개방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국제 인구 이동이 증대되고,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지리적, 시간적인 제약없이 이질적 문화와의 접촉이 용이해지면서 문화간 융합을 의미하는 컬처믹스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예기되는 문화적 변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 장기대책 수립을, 기업은 문화 적응력을 의미하는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을 향상시켜 조직 통합 수준을 제고하고 고객 감동을 유인해야 한다.

⑩ **호모 헨드레드(Homo hundred)의 패러독스.** 호모헨드레드 시대가 인류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킴으로써 인류의 삶 자체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 빈곤층, 바이오디바이드 심화 등 개인적 어려움과 생산성 하락, 사회복지 재정 등 국가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발현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 외 (02-2072-6218, limhj9@hri.co.kr)

□ 동향 : 베이비부머 노후준비 상태 현황 (국민연금 보도자료 요약)

○ 국민연금 가입여부

- 2011.11월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7,582천명 중 국민연금가입자는 4,742천명으로 62.5% 수준
- 남성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73.5%로 여성 51.3%에 비해 22.2%p 높음

2011.11월 기준, (단위 : 천명, %)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계 ¹⁾		7,582	(100.0)	3,841	(100.0)	3,741	(100.0)
국민연금 가 입 자	소 계	4,743	(62.5)	2,823	(73.5)	1,920	(51.3)
	소득신고자 ²⁾	3,730	(49.2)	2,298	(59.8)	1,432	(38.3)
	납부예외자 ³⁾	1,013	(13.3)	525	(13.7)	488	(13.0)
적 용 제 외 자	소 계	2,839	(37.5)	1,018	(26.5)	1,821	(48.7)
	특수직역 연금가입자 ⁴⁾	402	(5.3)	302	(7.9)	100	(2.7)
	조기노령 연금수급자 ⁵⁾	26	(0.4)	17	(0.4)	9	(0.2)
	전업주부 등 ⁶⁾	2,411	(31.8)	699	(18.2)	1,712	(45.8)

자료) 국민연금

주1) 2011.11월 기준 주민등록상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 인구

- 2)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중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람
- 3) 국민연금에 가입은 하였으나,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람
- 4)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가입자
- 5) 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수급자,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지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중 조기 은퇴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60세부터 받는 연금액보다는 다소 적지만 55세부터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6)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사람, 다만 이 중에는 종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결혼/출산/자녀교육 등을 위해 전업주부가 된 사람도 다수 존재

○ 노후준비 상태(공적연금기준)

- 베이비부머 세대 7,582천명 중 현재 가입기간만으로도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567천명으로 33.8% 수준
- 공적연금 가입이력이 10년 미만인 사람은 3,099천명으로 40.9% 수준
- 공적연금 가입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1,916천명으로 25.3% 수준

2011.11월 기준, (단위 : 천명, %)

구 분		전 체		국민연금가입자		적용제외자	
가입기간	성별	계	(비중)	소득신고자	납부제외자	전업주부 등 ²⁾	특수직역 등 ³⁾
계 ¹⁾	계	7,582	(100.0)	3,730	1,013	2,411	428
	남성	3,841	(100.0)	2,298	525	699	319
	여성	3,741	(100.0)	1,432	488	1,712	109
가입기간 없음 ⁴⁾	소계	1,916	(25.3)	-	459	1,457	-
	남성	420	(10.9)	-	174	246	-
	여성	1,496	(40.0)	-	285	1,211	-
5년 미만	소계	2,122	(28.0)	1,058	383	681	-
	남성	823	(21.4)	340	219	264	-
	여성	1,299	(34.7)	718	164	417	-
5~9년	소계	977	(12.9)	740	90	147	-
	남성	511	(13.4)	356	65	90	-
	여성	466	(12.5)	384	25	57	-
10년 이상 ⁵⁾	소계	2,567	(33.8)	1,932	81	126	428
	남성	2,087	(54.3)	1,602	67	99	319
	여성	480	(12.8)	330	14	27	109

자료) 국민연금

주1) 2011.11월 기준 주민등록상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 인구

- 2) 예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결혼/육아/자녀교육 등으로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도 포함됨
- 3)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가입자 등 특수직역연금가입자 402천명과 조기노령연금수급자 26천명 합계
- 4)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사람
- 5)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단,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해당연금의 가입기간 확인이 어려워 전체를 포함)

□ 이슈 : 실버 취업자의 특징 및 시사점

■ 실버 취업자의 현황

1955~1963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최근 본격화하면서 노후 대책이 사회 현안으로 대두 되고 있고, 고령 취업자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60~79세의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2.1%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2007-2011년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중 고령층 부가조사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60~79세의 실버 취업자의 일자리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 실버 취업자의 특징 및 일자리 분석

첫째, 실버 취업자의 연금 수령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2011년 기준 30만원으로 매우 낮고 실버 취업자 중 취약계층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 30만원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고령 취업자 중에서 10만원 이하 연금을 받거나 전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실버 취약계층 비중이 실버 취업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70-79세 실버 취업자의 임금 수준은 2011년 57만원으로 60-69세 실버 취업자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실버 취업자 중에서도 70대 취업자의 임금이 더욱 열악하다.** 금융위기 이후, 실버 취업자의 월 평균 실질 임금 증가율은 60대의 경우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70대는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셋째, 실버 취업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규직의 2배 이상이고 임금이 낮은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전체 취업자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13% 수준인데 반해 실버 취업자의 경우 32%를 차지함에 따라 실버 취업자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은 편이다. **넷째, 실버 취업자들은 생애 주요 경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중이 높다.** 이는 60세 이상 고령으로서 새로운 업종이나 직업으로 전직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단순노무 및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실버 취업자가 60%를 넘는 특성과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버 취업자 중 장래에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이 2008년 83%에서 2011년 기준 87.4%로 증가했다.** 이들 실버 취업자가 장래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 중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한 생계형 이유가 2011년 기준 53.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단순노무 종사의 60% 이상이 생활비 문제로 장래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5가지 실버 취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실버 취업자의 은퇴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시사점

60세 이상 실버 취업자는 임금, 연금, 일자리 형태 등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고, 단순노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근로기회를 잃어버리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실버 취업자들은 연령대와 직종에 따라 일하는 목적과 임금 수준 등이 많은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 정부는 고령 취업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즐거움 및 사회봉사 측면으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고령층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실버 취업자 가운데 취약계층에게는 직업 소개의 내실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1. 실버 취업자의 개요

- 1955~1963 년 출생한 한국 베이비부머(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최근 본격화되면서 노후 대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고령 취업자도 급증세를 나타냄
 - 2010 년 기준 60 세 이상 은퇴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은퇴빈곤층(Retire Poor) 가구가 무려 101 만 5,000 가구에 달해 고령으로 은퇴한 가구의 38.4%에 해당함
 - 은퇴빈곤층은 금융자산이 매우 빈약하고 그 중 개인적으로 준비한 노후자금이 미미하고 베이비부머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이 은퇴빈곤층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고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가 증가됨에 따라 실버 취업자가 증가
- 최근 10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0 만 이상 증가해 1 년 6 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으나 50 대 취업자 수가 30 만 명 증가, 60 대도 19 만 명이나 늘어 취업자 수 증가는 50~60 대 취업자 증가에 따른 것임
- 따라서, 2008-2011 년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중 고령층 부가조사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실버 취업자의 일자리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실버 취업자의 생활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취업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이나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와 일생의 주된 경력과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일자리의 질적인 평가를 함
 -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고령 빈곤층 및 은퇴빈곤층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통계청에서는 고령층을 55-79 세로 정의하여 고령층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연금수령 기준에 맞추어 60-79 세를 실버 취업자로 정의하여 분석함
 - 고용노동부에서는 준고령자를 50~55 세, 고령자를 55 세 이상으로 정의함

2. 실버 취업자의 현황

- 실버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취업자들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
- 60~79 세의 취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 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에 이들 실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1%를 나타냄
- 실버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 년 11.5%에서 2011 년 12.1%로 0.8%p 상승

< 취업자의 현황 및 추이 >

(단위 :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인구 수	39,136,844	39,540,124	40,027,172	40,532,784	41,002,804
	15 세 이상 취업자 수	23,757,902	23,938,974	23,720,232	24,305,914	24,660,916
실버	인구 수	6,123,955	6,317,862	6,475,329	6,669,648	6,931,113
	60-69 세 취업자	2,001,028	1,984,999	1,959,710	2,051,121	2,131,059
	70-79 세 취업자	722,439	722,563	746,391	810,724	841,720
전체취업자 중 실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11.5	11.3	11.4	11.8	12.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고령층 부가조사가 5 월에 실시됨에 따라 같은 시가의 비교를 위해 전체 15 세 이상 취업자수도 매해 5 월 데이터를 사용함

- 실버 중에서도 60-69 세, 70-79 세의 고용률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2011 년 기준 60-69 세의 실버 고용률은 51.1%를 나타내고 70-79 세의 경우 30.5%를 나타냄

< 고용률 현황 및 추이 >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고용률	60.7	60.5	59.3	60.0	60.1
실버고용률 (60-79 세)	44.5	42.9	41.8	42.9	42.9
60-69 세 고용률	52.2	50.6	49.4	50.7	51.1
70-79 세 고용률	31.5	30.2	29.8	30.9	30.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1) 실버 고용률은 고령층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60세-79세의 샘플을 활용하여 산출 (실버 고용률=100*실버취업자/고령층전체인구)

2) 고령층 부가조사가 5월에 실시됨에 따라 같은 시가의 비교를 위해 전체 고용률은 매해 5월 데이터를 사용함

3. 실버 취업자 특징 및 일자리 분석

○ **(실버 취약 계층 20%)** 실버 취업자 가운데 연금 수령 금액이 10 만원 이하이거나 전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실버 취약 계층은 실버 취업자 중 20%를 차지

- 실버 취업자 가운데 취약계층의 비중은 20%를 차지함

· 고령 취업자 중에서 10 만원 이하 연금을 받거나 전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20%를 차지하여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빈곤층으로 빠질 우려가 있음

< 실버 취업자 중 취약계층 현황 및 추이 >

(단위 : 명, %)

	2008	2009	2010	2011
10만원 이하 연금을 받으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	97,879	227,752	278,856	272,232
연금수령을 못하면서 단순노무 직에 종사	469,101	323,340	347,970	321,185
합 계	566,980	551,091	626,825	593,416
실버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	20.9	20.4	21.9	2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 **(연금수령 현황)** 실버 취업자 가운데 연금 수령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08 년 이후 지속적으로 60 세 이상 실버 취업자 중에서 연금 수령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연금 혜택을 받는 인구 증가
- 실버 취업자 중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 년 40.4%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 년 64.7%를 나타냄

< 실버 취업자 중 연금수령 현황 및 추이 >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수령자	40.4	59.1	61.8	64.7
비수령자	59.6	40.9	38.2	35.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1) 연금은 개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을 포함함.

- 2)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처음 시행되었는데 첫해에는 수령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더 제한적이었고 또한 고령층이 첫해에는 이 제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신청률도 지금보다 저조해 2008년에는 수령자 비중이 낮았음. 하지만 2009년에는 수령자가 되기 위한 조건도 완화되고 이 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신청자도 증가하여 2009년 수령자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됨.
- 3) 연금에 대한 조사는 2008년부터 고령층 부가조사에 포함되어 2007년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 월평균 연금 수령액을 살펴보면, 2008 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금 수령자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연금 수령액은 30 만 원대에 정체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기초 생활에도 부족한 상황

-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011 년 기준 30 만원을 나타내 여전히 1 인 가구 최저생계비 53 만원(2010 년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연금 수령액으로는 기초 생활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 연금받는 실버취업자의 연금수령액 현황 및 추이 >

(단위 : 만원)

	2008	2009	2010	2011
월평균 수령액	30.3	26.3	27.8	3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연금은 개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을 포함함.

○ **(임금 수준)** 70-79 세 실버 취업자의 임금 수준은 60-69 세 실버 취업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실버 중에서도 70 대 취업자의 임금이 더욱 열악하게 나타남

- 실버 취업자 중 60-69 세와 70-79 세의 임금 수준의 차이가 더욱 확대되며 특히 70-79 세 실버 취업자의 임금 수준 악화가 심각함

· 60-69 세의 실버 취업자의 임금 수준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70-79 세는 감소세를 나타냄

< 실버 취업자의 임금 현황 및 추이 >

(단위 : 만 원)

월 평균 명목 임금	2007	2008	2009	2010	2011
60-69세	107	108	111	121	130
70-79세	66	65	61	59	5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1)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함.

2)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조사)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조사가 이루어짐

3)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2007년 173만원, 2008년 181만원, 2009년 185만원, 2010년 195만원, 2011년 202만원을 나타냄

- 60-69 세 실버 취업자의 월 평균 실질 임금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 마이너스에서 최근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70-79 세 실버는 지속적으로 감소세

· 60-69 세 실버 취업자의 월 평균 실질 임금 증가율은 2011 년 기준 2.6%이었으나 70-79 세 실버 취업자는 -7.7%를 기록함

· 70-79 세의 실버 취업자는 2008 년 이후 명목과 실질 임금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냄

< 실질임금 증감률 추이 >

(%)

		2008	2009	2010	2011
실질 임금	60-69세	-2.9	-1.1	6.5	2.6
	70-79세	-5.2	-9.7	-5.5	-7.7
명목 임금	60-69세	0.9	2.8	9.0	7.4
	70-79세	-1.5	-6.2	-3.3	-3.4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실질임금=100*(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 (근로형태 및 직업별 분포) 실버 취업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단순 노무 종사자 등 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에 편중되어 있어 실버 취업자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음

- 실버 취업자의 근로형태를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 배를 넘음

· 실버 취업자 중 60-69 세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1 년 기준 66.6%, 70-79 세의 비정규직 비중은 77.3%를 나타내 실버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이 매우 열악함

· 전체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은 2011 년 기준 33% 수준인데 실버 취업자는 2 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실버 취업자의 근로형태별 추이 >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정규직	60-69세	32.8	34.2	35.6	34.3	33.4
	70-79세	25.7	26.5	23.3	19.4	22.7
비정규직	60-69세	67.2	65.8	64.4	65.7	66.6
	70-79세	74.3	73.5	76.7	80.6	77.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1)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함.

2)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조사)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조사가 이루어짐

3) 통계청의 정규직 비정규직 정의를 이용하여 분류함.

4) 전체 근로자의 정규직 비중은 2007년 66%, 2008년 67%, 2009년 68%, 2010년 68%, 2011년 67%를 각각 나타냄

- 실버 취업자의 직업을 분류해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60%를 넘어 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에 편중되어 있음

· 취업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 년에서 2008 년 소폭 감소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 년 31.5%를 기록함에 따라 최근 60 세 이상 고령 취업자의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도 악화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인데 반해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에는 30%가 넘어 고령 취업자가 평균적으로 양질에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낮음

< 실버 취업자의 직업별 현황 >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문직	5.7	6.7	6.3	6.4	7.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9.4	19.1	18.5	17.1	17.6
기능직	10.2	11.0	11.6	13.3	14.2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35.6	35.1	33.3	30.3	29.4
단순 노무 종사자	29.1	28.1	30.2	32.9	3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1) 전문직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포함, 기능직은 기능원 및 관련기증 종사자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포함.

2) 단순 노무 종사자는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및 기타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자를 포함

3) 2010년 기준 각 직종에 종사하는 전체 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2%, 사무 종사자 15.7%, 서비스 종사자 10.2%, 판매 종사자 12.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3%, 단순노무 종사자 13.5%로 이들 직종에 많이 취업되어 있음

○ **(일자리의 경력 연관성)** 실버 취업자들은 생애 주요 경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중이 높는데 이는 60 세 이상 고령으로서 새로운 업종이나 직업으로 전직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단순노무 및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실버 취업자가 60%를 넘는 특성과 연관이 있음

- 실버 취업자들은 생애 주요 경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함

· 이는 60 세 이상 고령으로서 새로운 업종이나 직업으로 전직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고
단순노무 및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실버 취업자가 60%를 넘는 특성과 연관이 있음

< 취업 일자리와 생애 주된 경력과의 관련성 여부 >

(단위 : %)

최근 일자리와 경력과 관련성 정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혀 관련이 없음	16.0	16.3	17.8	19.5	20.1
별로 관련이 없음	10.2	10.2	9.8	10.6	9.7
약간 관련이 있음	8.1	8.2	8.1	8.8	8.5
매우 관련 있음	65.7	65.3	64.3	61.0	61.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60세 이상 취업자만 대상으로 구성 비중을 산출함

- 실버 취업자의 지난 1년간 취업 경험 횟수가 1회인 경우가 84%를 나타냄
- 지난 1년간 취업 경험 횟수가 1회인 취업자의 비중은 2008년 87.7%에서 2011년 84%로 감소하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근로 조건이 열악해도 취업 기회나 취업 여건이 제약되어 이직을 꺼리는 현실을 반영함

< 지난 1년간 취업 경험 >

(단위 : %)

취업 경험 횟수	2007	2008	2009	2010	2011
한 번	86.2	87.7	87.2	84.2	84.0
두 번	7.8	7.3	7.3	10.6	10.3
세 번 이상	6.0	5.0	5.6	5.1	5.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60세 이상 취업자만 대상으로 구성 비중을 산출하였고 지난 1년간 취업 경험은 현재 직장 및 일자리를 포함함

- **(장래 근로 계획)** 실버 취업자의 대부분이 장래 근로를 희망하고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한 이유가 장래에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고령 취업자 중 반 이상은 은퇴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60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 중 장래에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60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 중 장래에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이 2008년 83%에서 2011년 기준 87.4%로 증가함

< 취업자의 장래 근로 희망 여부 >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장래근로 원함	84.3	83.0	84.2	87.6	87.4
장래근로 원하지 않음	15.7	17.0	15.8	12.4	1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60세 이상 비취업자만 대상으로 구성 비중을 산출하면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 비중은 2011년 기준 22.1%,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 비중은 77.9%를 나타내 실버취업자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임

- 장래 근로를 원하는 고령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장래 일자리를 원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니,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한 생계형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는 실버 취업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실버 취업자는 장래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유 중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한 생계형 이유가 2011년 기준 53.1%를 차지함
- 또한, 일하는 즐거움의 이유를 답한 실버 취업자의 비중은 2011년 38.6%를 차지하며 생활비 보탬 이유뿐 만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도 장래 일자리를 원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취업자의 장래 근로 희망 이유 >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일하는 즐거움	35.9	36.6	36.0	35.9	38.6
생활비에 보탬	55.7	54.6	55.8	55.9	53.1
사회가필요로함	1.5	1.4	1.5	1.7	1.7
건강유지	2.7	2.7	2.2	2.2	2.4
무료해서	4.0	4.6	4.5	4.1	3.9
기 타	0.2	0.1	0.1	0.3	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 취업자들만을 대상으로 비중을 산출함

- 장래 근로를 원하는 실버 취업자들을 직종별로 나누어 장래 일자리를 원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니, 직업별에 따라 일하는 이유가 큰 차이를 보이며 단순노무 종사자의 60% 이상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문직 종사자는 일하는 즐거움이 56%를 차지하고 생활비 보탬이 15%를 나타냄

< 실버 취업자의 직업별 근로 희망 이유 >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문직	일하는 즐거움	55.0	56.7	59.1	52.5	56.4
	생활비에 보탬	23.1	20.0	21.2	21.4	15.3
단순 노무 종사자	일하는 즐거움	24.2	23.0	22.2	22.3	25.0
	생활비에 보탬	61.4	60.6	61.3	65.1	6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주 :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 중 위의 두 가지 이유 외에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유지, 무료해서, 기타 등이 있음

4. 시사점

- 60 세 이상 실버 취업자의 임금, 연금, 일자리 형태 등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버 취업자 중 특히 취약계층은 근로기회를 잃어버리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실버 취업자들은 연령대와 직종에 따라 일하는 목적과 임금 수준 등이 많이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 정부는 고령 취업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일 자리를 창출하는 등 차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돈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일하는 즐거움 및 사회봉사 측면으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고령층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
- 실버 취업자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상실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직업 소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선진국의 중고령층 고용 정책을 한국의 실정과 상황에 맞게 응용하여 한국형선진 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효율성 제고
 - 영국의 중고령층 고용네트워크(The Age and Employment Network: TAEN)는 중고령층의 구직, 경력개발, 훈련, 진로모색 등을 돕는 독립적인 기구로 특화되어 있음
 - 미국, 일본,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중고령층을 위한 특화된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고령취업자들을 위한 직무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과 복지프로그램을 일원화하여 고용정책 효율성 제고
 - 고령자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취업 원스톱서비스 제공

- 평균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층의 생계형 취업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 취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 실버 취업자 중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 안정망 확대 필요
 - 실버 취업자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고령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 (kimmj@hri.co.kr, 02-2072-6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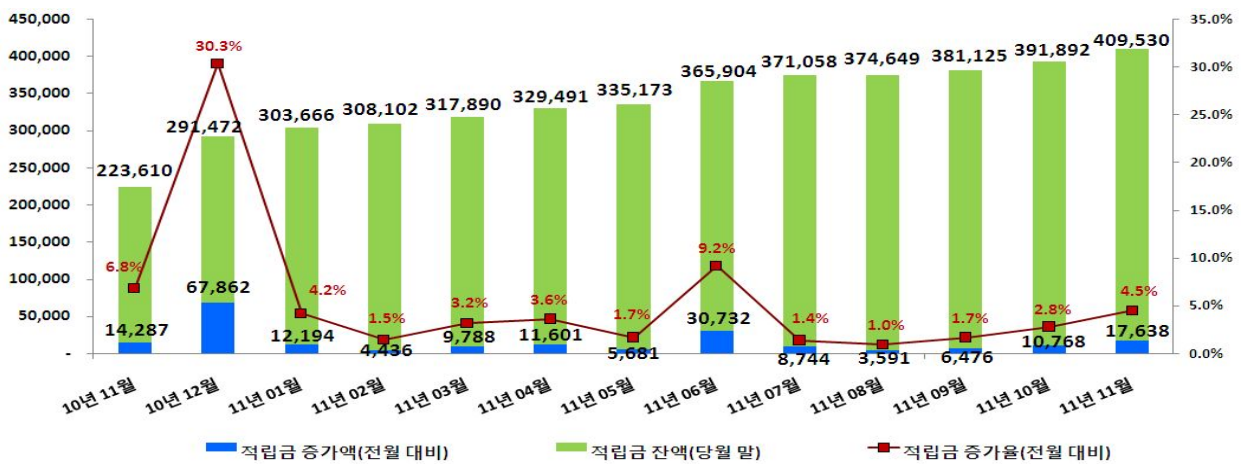
□ 퇴직연금통계 (2011. 11월 현재)

○ 적립금 규모

- 2011년 11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40조 9,530 억원으로 전월말(39조 1,892 억원) 대비 1조 7,638 억원 증가
- 전년말(29조 1,472 억원) 대비 40.5%(11조 8,058 억원) 증가
- 전년 동기('10.11월) 적립금 증가액(1조 4,287 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퇴직연금 도입('05.12월) 이래 최초 40조원 돌파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30,755 개소로 전월말(125,504 개소) 대비 4.2% 증가
- 쏠 사업장(1,507,158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8.7%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73,923	35,814	15,402	4,122	658	836	130,755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5.8	21.4	30.8	40.0	48.3	74.6	8.7

자료 : 금융감독원

□ 洗心錄

□ 나이 들어 대접받는 7가지 비결

편안하게 잘 죽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품위 있고 고상하게 늙어 가는 일이라고 한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듯, '존경받는 노후'를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투자와 훈련이 필요하다. 2006년 2월 오명철 동아일보 부국장은 노년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청량음료 같은 지혜라는 의미에서 '세븐업'(7-UP, 미국의 사이다)으로 명명하여 설명하고 있다.

- **Clean Up** : 나이 들수록 집과 환경을 모두 깨끗이 한다. 귀중품이나 패물은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살아생전에 선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받는 이의 고마움도 배가된다.
- **Dress Up** :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해 구질구질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한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비싼 옷을 입어도 좀처럼 태가 나지 않는 법이다.
- **Shut Up** :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한다. 노인의 장광설과 훈수는 주위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말 대신 박수를 많이 쳐 주는 것이 좋다.
- **Show Up** :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라. 집에만 칩거하며 대외 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든다.
- **Cheer Up** :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지혜롭고 활달한 노인은 주변을 활기차게 만든다. 짧으면서도 곱삭은 지혜의 말에다 독창적인 유머 한 가지를 곁들일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 **Pay Up** :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대접을 받는다.
- **Give Up** :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라. 이제껏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세상만사와 부부 자식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변하겠는가. 되지도 않을 일로 속을 끓이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편이 낫다.

오 부국장은 여기에 곁들여 "1, 10, 100, 1000, 10000의 법칙"을 제안한다. 하루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고, 하루 10사람을 만나고, 하루 100자를 쓰고, 하루 1,000자를 읽으며, 하루 10,000 보씩 걷는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훌륭한 노년이 있을까.

**노년의 서글픔은 늙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늙었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는 데 있다.
 오스카 와일드(1854~1900) : 아일랜드 소설가**